

한국외교사연구회 발제문(2014. 12. 20)

발제자: 이택선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모든 것을 다 언급하기보다는 고려가 원의 패권을 받아들여지게 된 시기와 원, 명 전환기인 고려 말기 상황을 중심으로 요약하였음.

1. 고려사절요 제19권

원종 순효대왕 2(元宗順孝大王二)

신미 12년(1271), 송 함순 7년 · 몽고 지원 8년

○ 문하시중 이장용(李藏用)과 참지정사 최영(崔瑛)이 왕을 폐하고 안경공(安慶公) 창(淸)을 세웠던 임연(林衍)의 음모에 가담했다 하여 면직되었다.

-3대에 걸친 최씨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그 뒤를 이었던 김준을 다시 임연이 몰아내는 등 고려 내부 국내정치의 변동을 보여줌.

ex)2012년 MBC 드라마 “무신”의 후속 줄거리라고 생각하면 됨.

○ 추밀원사 김련(金鍊)을 몽고에 보내어 청혼하고, 또 일본 · 남송(南宋) 등과 왕래한 일에 대하여 변명하였다.

-아직까지 몽고의 원 제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줌.

○ 왕이 다루가치에게 청하여 사람을 보내서 설유하였으나, 천서가 듣지 않고 지주사 및 아전 백성 1천여 명을 위협해서 강제로 데리고 갔다. 삼별초가 합포현(合浦縣 경남 창원(昌原))에 침입하여 감무를 잡아갔다.

-왕인 원종은 몽고 원 제국의 지배를 수용하고 이를 무신정권들에 대한 견제책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무신들은 이에 반발함을 보여줌.

*이후 증거들

○ ‘우리 백성도 황제의 백성인데 생업을 잃어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도적에게 붙게 될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 세자 심(諶)을 인질로 몽고에 들여보냈다.

○ 이창경(李昌慶)이 몽고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세자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원종 순효대왕 2(元宗順孝大王二)

임신 13년(1272), 송 함순 8년 · 원 지원 9년

-고려 왕실은 몽고 원 제국의 지배를 수용하여 무신들에 대항하여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고 무신들은 이에 저항하는 형세가 이어짐

○ 제안후(齊安侯) 숙(淑)과 추밀원부사 송송례(宋松禮)를 원 나라에 보내어 새로 국호 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 2월에 세자 심이 원 나라에서 돌아왔다. 세자가 오래 연경(燕京)에 머무르니 같이 간 사람들이 모두 수심에 잠겨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여, 세자에게 일본을 치는 일로 황제

에게 청원하여 돌아올 것을 권하였다. 임유간(林惟幹)이 듣고 이 일을 빙자하여 먼저 황제에게 청원해서 본국으로 돌아와 몰수당한 전민(田民)과 재물 보화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세자가 그것을 알고, 마지 못하여 도성(都省)에 고하여 황제에게 청원하기를, “지금 일본만이 황제의 교화를 입지 못하여 전함과 군량이 현재 필요하니, 만일 이 일을 신에게 맡긴다면 거의 심력을 다하여 왕사(王師)를 돕겠습니다.” 하니, 황제가 단사관 불화(不花)와 낭중 마강(馬絳)을 보내어 세자를 호위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무신정권은 임연 사망 이후 굴복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씨 무신정권의 지지 세력이었던 삼별초가 제주도와 인근 도서들을 중심으로 원 제국에 저항하게 되고 원 조정이 이들을 토벌하려는 계획을 세움.

○ 원 나라에서 시위친군천호(侍衛親軍千戶) 왕잠(王岑)을 보내어 다구와 더불어 탐라를 정벌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 11월에 삼별초가 안남 도호부에 침입하여 부사(府使) 공유(孔楡) 및 그 처를 잡아가고 또 함포에 침입하여 전함 20척을 불태우며, 몽고 봉졸(烽卒) 4명을 잡아갔다.

원종 순효대왕 2(元宗順孝大王二)

계유 14년(1273), 송 함순 9년 · 원 지원 10년

*원 제국이 고려 조정을 신민으로 삼는 한편 고려군과 합동으로 삼별초 저항의 근거지로 직접 쳐들어가 저항을 잠재우기 시작함. 이후 제주 지역은 공민왕 때 까지 몽고직할의 지배령이 됨.

○ 원 나라에서 황후와 태자를 책봉하고 사신을 보내어 조서를 반포하였다.

○ 윤월에 탐라에 주둔하였던 장군 송보연이 적의 괴수 김통정의 시체를 찾아 아뢰고, 또 적장 김혁정(金革正) · 이기(李奇) 등 70여 명을 수색 체포하여 다구에게로 보내니, 모두 죽였다.

○ 원 나라에서 탐라에 다루가치를 설치하였다

원종 순효대왕 2(元宗順孝大王二)

갑술 15년(1274), 송 함순 10년 · 원 지원 11년

*원이 원의 공주를 고려의 왕비로 삼게 하여 혼인관계를 맺고 고려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 정벌에 고려의 재원과 인력을 동원하기 시작함. 이에 고려의 백성들이 원의 횡포에 신음하게 됨.

○ 봄 정월에 원 나라에서 총관(摠管) 찰홀(察忽)을 보내어 감독하여 전함 3백 척을 건조하게 하였다. 정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장 · 인부 3만 5백 명의 하루 세 끼의 양식을 계산하더라도 3개월 동안 모두 3만 4천 3백 12석 5두를 지출하여야 함이다.

○3월에 원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 군사 5천 명을 징발하여 일본 정벌을 돕도록 명하였다.

○원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와서 부녀자를 색출하여 만자(蠻子)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 이에 결혼도감을 설치하고 촌가의 여자 1백 4십 명을 찾아내어 만자(蠻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만자들이 곧 데리고 돌아가니 곡성이 길에 가득하였다.

○병술일에 세자가 원 나라 황제의 딸 홀도노계리미실공주(忽都魯揭里迷失公主)와 결혼하였다.

○원 나라의 정동군(征東軍) 1만 5천 명이 왔다.

2.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이 처음부터 반원정책을 취한 것은 아니었음. 초기에는 우호적인 정책을 펴다가 1354년경부터 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원의 요청으로 인해 파견된 최영 등이 원의 국력하강을 목격하게 됨. 이후 자연스럽게 고려 내부에서 반원감정이 일어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옛 영토를 회복하고 원나라 연호를 쓰지 않기로 한 1357년 까지만 해도 원나라에 하례는 하는 방식을 취함.

이와 함께, 고려는 장사성, 방국진, 그리고 기타 반란세력들로부터 방물을 받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명 건국의 주체가 되는 홍건적 세력들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

공민왕 1(恭愍王一)

임진 원년(1352), 원 지정 12년

○경내(境內)에 사(赦)하고 교서를 내리기를, “우리 태조(太祖)께서 삼한(三韓)을 통일하셨고, 열성(列聖)께서는 이어서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겼으며, 우리 원 나라가 일어남에 미쳐서는 천하에 앞장서서 귀부하였다. 우리 충경왕(忠敬王)께서 원 나라에 들어가시어 조근(朝覲)하였을 때에는 세조황제(世祖皇帝)께서 특별한 총애를 내려 주시었고, 충렬·충선의 두 왕은 대대로 원 나라의 사위가 되셨으며, 우리 아버지 충숙왕께서도 또한 원 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받으셨고, 왕위를 계승하고 나라에 임하시기 25년이였다. 그 뒤로 하늘이 돌보지 않아 충목왕 이래 수명을 오래 누리지 못하였는데, 나라의 원로들이 나를 충선왕의 손자요, 충숙왕의 아들이므로 덕으로도 연치로나 왕위를 이음이 합당하다 하여 글을 천자에게 바쳐 받들어 왕으로 삼기를 원하여, 천자께서 그 말을 굽어살피시어 채택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왕으로 삼는 명을 내려주셨다.”

공민왕 1(恭愍王一)

계사 2년(1353), 원 지정 13년

○ 밀직사 이야선첩목아(李也先帖木兒), 응양군 상호군 안우(安祐)를 원 나라에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황후 생일에 예물을 바쳤다. 황후 생일의 하례는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 8월에 원 나라에서 만만태자(蠻蠻太子). 정안평장(定安平章) 등을 보내어, 발아찰(孛兒剌) 연회를 내려, 드디어 그 연회를 연경궁(延慶宮)에서 베풀었다. 공주와 태자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고, 왕은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앉으며, 황후의 어머니 이씨(李氏)는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앉았는데, 왕이 먼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원 나라의 태자에게 잔을 올렸더니, 태자가 서서 마신 뒤 차례로 술잔을 돌리고, 태자가 또 일어나 술을 이씨에게 드리고 다음에는 왕에게, 다음에는 공주에게 돌렸다. 이 잔치에 베풀 써서 꽃을 만든 것이 무릇 5천 1백 40여 필이요, 다른 물건들도 이에 기준을 맞추어 극도로 사치를 다하였다. 원 나라의 법에 인아(姻婭)간에 모여서 잔치하는 것을 일컬어 발아찰 잔치라 하였다. 먼저 왕이 이씨를 위하여 표문을 올려 청했기 때문에 황제가 이 잔치를 내린 것이었다.

○ 채하중(蔡河中)을 원 나라에 보내어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고, 군부판서 김희조(金希祖)를 보내어 태자 책봉을 하례하였는데, 이색(李穡)을 서장관으로 따라가게 하여 과거에 응시하게 하였더니, 제과(制科)에 합격하였다.

공민왕 1(恭愍王一)

을미 4년(1355), 원 지정 15년

○전라도 안렴사 정지상(鄭之祥)이 원 나라의 어향사(御香使) 야사불화(桒思不花)를 전주에서 가두었다. 불화는 본시 우리나라 사람인데, 원 나라에 들어가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다. 지상이 분하여 크게 읍리(邑吏)들을 규합하여 속여 말하기를, “나라에서는 이미 기씨(奇氏) 일당을 주멸(誅滅)하고 다시는 원 나라를 섬기지 않기로 하였으며, 김경직(金敬直)을 원수로 삼아 압록강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 사자(使者)를 잡을 수 있다. 너희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나를 구하지 않는가.” 왕이 깜짝 놀라 그를 순군옥에 가두고, 행성원외랑(行省員外郎) 정휘(鄭暉)에게 명하여 전주목사 최영기(崔英起)와 읍리 등을 체포하고, 차포온(車蒲溫)을 보내어 그 금패를 불화에게 돌려주었다.

공민왕 1(恭愍王一)

병신 5년(1356), 원 지정 16년

○드디어 원 나라의 연호인 지정(至正)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

○ 가을 7월에 옛 관제를 회복하고 홍헌(洪獻 함남 홍원(洪原))·삼살(三撒 함남 북청(北靑))은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였는데, 고종(高宗) 무오년에 원 나라에 함몰되었다가 무려 99년 만에 수복한 것이다.

○ 추밀원사(樞密院使) 김희조(金希祖)를 원 나라에 보내어 태자(太子)의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3. 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무술 7년(1358), 원 지정(至正) 18년

○ 강절행성승상(江浙行省丞相) 장사성(張士誠)이 보낸 사신이 와서 침향(沈香)·산수정(山水精)·산옥대(山玉帶)와 비단 등의 물건을 바치며 말하기를, “요즈음 중국이 평온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회동(淮東)에서 분연히 군사를 일으켜 다행히 오(吳)의 땅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으나, 서쪽 도적이 흉악한 짓을 함부로 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구니, 소탕할 뜻은 있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소. 내 들으니, 국왕은 덕이 있어 국내의 백성들이 생업을 즐긴다 하니 내 마음이 위로되오.” 하였는데, 이때 사성이 항주(杭州)에 웅거하여 태위(太尉)라 일컬었다. 강절해도 만호(江浙海島萬戶) 정문빈(丁文彬)도 글을 보내고 토산물을 바쳐 왔다.

기해 8년(1359), 원 지정 19년

○ 장사성(張士誠)이 보낸 사신이 와서 비단과 금띠를 바치고, 정문빈(丁文彬)도 토산물(土產物)을 바쳤다.

○ 8월에 방국진(方國珍)이 보낸 사신이 방물을 바쳤다.

○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의 유민 2천 3백여 호가 와서 투항하니, 서북의 고을에 나누어 살게 하고, 관곡으로 양식을 대주었다. 이보다 앞서, 본국 사람 중에도 압록강을 건너가서 사는 자가 있었는데, 난리 때문에 모두 돌아왔다.

경자 9년(1360), 원 지정 20년

○윤환(尹桓)을 칠원후(漆原侯)로, 유탁(柳濯)을 고흥후(高興侯)로, 설손(偃遜)을 고창백(高昌伯)으로, 안우(安祐)를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삼았다. 설손은 고창국(高昌國) 사람인데, 왕이 원 나라에 있을 때 더불어 사귀었고, 그 뒤에 난리를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동쪽으로 왔다.

계묘 12년(1363), 원 지정 23년

○당시 왕은 원 나라에서 자신의 왕위를 폐하였다 해도 공헌(貢獻)을 폐한 일이 없었고,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사대하는 예의를 더욱 공경히 하였으며, 진정(陳情)하고 계품(啓稟)하여 황제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으나, 최유(崔濡)와 박불화(朴不花) 등이 이것을 가려 진헌하는 예물을 빼앗아서 황제께 보내는 글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4. 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정미 16년(1367), 원 지정 27년

○ 봄 정월에 원나라에서 전 요양이문(遼陽理問) 홀도첩목아(忽都帖木兒)를 보내어 영릉(永陵)의 시호를 충혜(忠惠)로, 명릉(明陵)의 시호를 충목(忠穆)으로, 총릉(聰陵)의 시호를 충정(忠定)으로 추증하였다.

○ 2월에 원 나라의 태자가 대부경(大府卿) 대도려(大都驢)를 보내어 왕에게 의복과 술을 주었다.

-4년 동안 소원해졌었던 고려와 원의 관계가 형식적으로는 회복됨. 이는 1368년 원 제국이 멸망하고 몽골초원에 북원이 성립하는 등 동아시아 일대의 지역패권에 변동이 오고 있었기 때문임.

공민왕 3(恭愍王三)

무신 17년(1368), 원 지정 28년 · 대명 태조 고향제 홍무 원년

○ 왕이 원 나라의 황제가 상도(上都 북경(北京))로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백관을 모아 명(明)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 원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와서 군사를 청하여 중원을 수복하려 하였다.

공민왕 3(恭愍王三)

기유 18년(1369), 대명 홍무 2년

-원의 연호를 폐지하였으나 원과 명 모두와 관계를 맺음.

○ 원 나라에서 중서성 우승(中書省右丞) 두리한(豆利罕)을 보내어 왕에게 의복과 술을 주었다.

○ 3월에 왕중귀(王重貴)를 원 나라에 보내어 성절을 하례하였다.

○ 명 나라 태조(太祖) 고향제(高皇帝)가 부보랑(符寶郎) 설사(偃斯)를 보내어 새서(璽書) 황제의 옥새를 찍은 친서)와 사라(紗羅) 단필(段匹)을 내리니,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송인문(崇仁門) 밖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그 글에, “대명 황제는 고려 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송나라가 천하를 통어(統御)하지 못하여 하늘이 그 제사를 끊은 뒤로 원 나라가 우리의 동류가 아닌데도 하늘의 명령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왕노릇 한 지가 1백여 년이 되었다. 하늘이 혼암(昏暗)하고 음란함을 싫어하여 역시 운명을 끊어버려 중화(中華)와 오랑캐가 요란하게 싸운 지 18년이 되었다.

○ 지정(至正) 연호를 정지하였다.

5. 고려사절요 제29권

공민왕 4(恭愍王四)

경술 19년(1370), 대명 홍무 3년

○ 가을 7월에 홍무(洪武) 연호를 처음 시행하였다.

○ 삼사좌사 강사찬(姜師贊)을 명 나라 서울에 보내어 책명(冊命)과 새서(璽書) 준 것에 사례하고, 아울러 원 나라에서 준 금인(金印)을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는 탐라의 일을 아뢰고, 악공을 청하였다.

○ 8월에 사헌부(司憲府)에서 복색을 바꾸기를 청하니, 그 말을 따랐다.

○ 태상박사(太常博士) 박실(朴實)과 정언(正言) 김도(金濤)와 춘추관 수찬(春秋館修撰) 유백유(柳伯濡)를 보내어 명 나라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게 하였더니, 김도가 제과(制科)에 합격하였다.

공민왕 4(恭愍王四)

신해 20년(1371), 대명 홍무 4년

○ 2월에 여진의 천호 이두란첩목아(李豆蘭帖木兒)가 백호 보개(甫介)를 보내어 1백 호를 거느리고 와서 투항하였다.

○ 5월에 강사찬(姜師贊)이 명 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고려의 태상(太常)의 악공을 명 나라 서울에 보내어 음악을 익히라고 명하였다.

공민왕 4(恭愍王四)

임자 21년(1372), 대명 홍무 5년

○ 3월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홍사범(洪師範)을 남경(南京 명 나라 서울)에 보내어 촉(蜀)을 평정한 것을 하례하고, 자제를 보내어 입학하기를 청하였다.

○ 황제가 전 원 나라의 원사(院使)인 환자 연달마실리(延達麼失里)와 손내시(孫內侍)를 보내 와서 왕에게 채단(綵段)과 사라(紗羅)를 주고, 또 한황제(漢皇帝)·하황제(夏皇帝)의 가속 27명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군사도 삼지 말고 백성도 삼지 말라.” 하였다. 이에 진리(陳理)·명승(明昇) 등이 배를 타고 왔다.

공민왕 4(恭愍王四)

계축 22년(1373), 대명 홍무 6년

○ 2월에 북원(北元)에서 파도첩목아(波都帖木兒)와 오산불화(於山不花)를 보내서 조서를 내리기를, “지난번에 병란으로 인하여 북방에 파친하였으나, 이제 확곽첩목아(擴廓帖木兒)를 재상으로 삼아 거의 중흥하게 되었다. 왕도 세조(世祖 홀필렬(忽必烈))의 손자이니, 힘을 보태서 다시 천하를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하였다. 처음에 두 사람이 국경에 들어오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들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많은 신하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다투었다.

○ 홍사범(洪師範)이 남경에서 돌아오다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배가 부서져서 죽었다. 서장관(書狀官) 정몽주(鄭夢周)가 돌아와서 황제의 명령을 선포하였는데, “고구려가 당 태종 때에 자제를 보내어 입학하였는데, 지금 왕도 자제를 보내기를 청하니 진실로 훌륭한 일이다. 다만 고려가, 남경과의 거리가 수로와 육로로 만여 리나 되므로, 부모가 반드시 그 아들이

염려될 것이요, 아들이 반드시 그 아버지를 생각할 것이니, 그 아비와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만 보내도록 할 것이다. 또 해마다 두서너 번 물품을 바치는 것은 반드시 백성을 번거롭게 할 것이요, 사신이 왕래하는 바닷길이 험하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제후가 천자에게 해마다 한 번 소빙(小聘)을 하고, 3년에 한 번 대빙(大聘)을 하며, 구주(九州)이외의 지역은 한 세대 만에 한 번 조현(朝見)하였는데, 지금 고려는 중국과의 거리가 조금 가깝고 문물과 예악이 중국과 서로 같으므로, 다른 번국(蕃國)과 같이 하기는 어려우니, 지금부터는 3년 만에 한 번 조빙하는 예에 의거할 것이며, 혹시 한 세대 만에 조현하고자 하여도 가하다. 방물은 토산의 배만을 쓰되, 그것도 3, 5대(對)만으로써 성의만 표시하는 데 그치라." 하였다.

공민왕 4(恭愍王四)

갑인 23년(1374), 대명 홍무 7년

○ 5월에 사람들이 오랑캐를 본받아 앞머리를 깎는 것을 금하였다.

○ 정비(鄭庇) 등이 남경에서 돌아왔는데, 중서성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자문(咨文)을 보냈으니, 그 자문에, “정비가 가지고 온 예물이 정해진 공물 액수보다 많고, 또 백저(白苧) 3백 필을 태부감(大府監)에 보냈으니, 태부감은 본래 원조가 설치하였던 명칭이다. 너희 나라에서 자주 사신을 보내 오면서, 어찌 국가(명 나라)에서 태부감을 일찍이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며, 공물을 명분도 없이 바치는 것은 실로 대국을 성심으로써 섬기는 예가 아니다. 하물며, 우리 조정은 사해가 한 집안이 되었으니, 어찌 작은 나라의 공물에 의뢰하겠느냐. 또 지난해에 김갑우(金甲雨)가 말 50필을 바쳤다고 말하나, 길에서 2필이 없어져서 남성에 이르렀을 때 남은 것은 49필이었다. 말한 바가 모두 진상하는 수효에 관계되므로 태복시(太僕寺)를 시켜 조사해 보니, 모두 탈 만한 말이 아니고, 그 중의 1필은 김갑우가 제물건이라 하면서 스스로 동궁에게 바치고자 하는데, 그 중의 거짓 계략과 속임수를 환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왕의 뜻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신하들이 성실하지 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 조정은 피아(彼我)의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으므로, 사소한 허물은 따지지 않겠다. 지금 왕이 바다 건너 멀리 사신을 보내 왔으니, 어려움과 험함이 있을 것이다. 바친 공물은 배 6대(對)만 받고, 나머지 물건은 온 사신에게 주어서 돌려보낸다. 3년 만에 한 번 조공을 하라. 물건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지성에 달려 있다.” 하였다. 이에 김갑우를 목베었다.

6. 고려사절요 제30권

*우왕의 즉위와 함께 공민왕의 친명정책이 친원 정책으로 변하게 됨, 이인임 등의 권신들은 북원이 1372년 명의 요동 침공을 일시적으로 격퇴시키자 다시 친원정책을 취하였으나 정몽주 등의 신진 사대부들은 이에 반발함. 그러나, 이러한 친원 정책은 불과 1년만에 고려가 다시 명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게 됨.

신우 1(辛禡一)

을묘 신우 원년(1375), 대명 홍무 8년

○ 북원이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백안첩목아왕[공민왕]이 우리를 배반하고 명 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너희 나라의 임금을 죽인 죄를 용서한다.” 하였다.

○ 성균대사성 정몽주(鄭夢周)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조서를 보내 우리에게 대역의 죄를 씌우고 이어서 용서하는 체하였는데, 우리가 본래 죄가 없는데 무엇을 용서

하는 것입니까.

신우 1(辛禡一)

병진 신우 2년(1376), 대명 홍무 9년

○ 북원이 병부 상서 발가첩목아(孛哥帖木兒) 등을 보내어 왔는데, 우승상 확확첩목아(擴廓帖木兒)가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반드시 믿는 곳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너의 전왕이 지난해에 우리 황제께서 북쪽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필시 잠깐 동안 주구(朱寇 명 태조를 가리킴)에게 미끼를 주어서 나라 안을 편안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이 가까이 있고, 또 옛 임금(원 나라 황제)의 의리가 중하며, 구생(舅甥)간의 은혜가 두터우니, 배반을 할 수가 있는가. 왕자(王子)는 생각을 고쳐서 상국의 명령에 응하여, 군사를 가다듬고 말을 먹여서 함께 앞뒤로 호응하여 적을 견제하는 형세를 이루어 우리 국가의 중흥의 대업을 돕게 하라." 하였다.

신우 1(辛禡一)

정사 신우 3년(1377), 대명 홍무 10년

- 나하추가 사신을 보내어 양과 말을 바쳤다.
- 북원이 한림승지 패라적(孛剌赤)을 보내서 우(禡)를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 정동행성 좌승상 고려국왕(開府儀同三司征東行省左丞相高麗國王)으로 삼았다.
- 북원의 선광(宣光) 연호를 비로소 시행하였다.
- 북원이 선휘원사(宣徽院使) 철리첩목아(徹里帖木兒)를 보내 와서 정료위를 협공하자고 청하였다.

신우 1(辛禡一)

무오 신우 4년(1378), 대명 홍무 11년

- 사헌부가, 최원(崔源)이 남경에 있을 때에 김의(金義)가 사신을 죽인 것과 선왕이 흥서(薨逝)한 까닭을 숨기지 않았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최원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죽었다.
- 다시 홍무(洪武) 연호를 시행하였다.

7. 고려사절요 제31권

신우 2(辛禡二)

기미 신우 5년(1379), 대명 홍무 12년

*고려의 진의와 충성심에 대하여 의심하고 추궁하는 명

○ 예부 상서 주몽염(朱夢炎)이 전지를 기록하여 국인에게 보이기를, "고려 국왕 왕전(王顥)이 표문을 받들어 조공할 때부터 신하라 일컬었는데, 그 표문에 '자손 대대로 신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짐이 보건대, 고려가 중국에 대하여, 한(漢) 나라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대부분의 임금과 신하가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거짓으로 사귀어 화를 만들기만 하였다. 옛날 한 나라 때에 고(高)씨가 왕위를 잃었는데 광무제(光武帝)가 그 왕호를 회복하여 주었으나 도리어 곧 변방을 침략하다가 한 나라 군사에게 크게 패하였고, 당나

라가 천하를 차지하였을 때에도 일찍이 봉작(封爵)을 주었으나, 곧 다시 배반하여 부자가 포로가 되어 족성(族姓)이 마침내 끊어졌다. 송 나라가 일어남에 이르러서는 왕씨(王氏)가 나라를 차지했으나 거란과 여진(女眞)에게 꺾박당하여 기꺼이 종노릇을 하였고, 원 세조(元世祖)가 중원에 들어와서 거의 망하게 된 본국을 구원하여 주었는데, 공연히 의심을 품고 사신을 죽여서 여러 번 항복하고 여러 번 반역하였다. 그러므로 자주 병화를 만난 것이다.

○ 요동도사(遼東都司)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게 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근자에 들으니, 나하추가 사람을 시켜 합라(哈刺)·쌍성(雙城)을 경유해서 은밀히 고려에 보내어 예를 행하였고, 호주(胡州 북원(北元))도 사람을 시켜 앞서 고려에 가서 공무의 회의를 하였다 하는데, 생각하건대 본국(고려)이 일찍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서 우리 조정에 조공하여 신하의 예를 이미 정하였으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나하추 등이 비록 사람을 은밀히 보내더라도, 본국이 어찌 다시 그와 교통할 수 있는가. 오랑캐 사신을 잡아서 사람을 보내어 압송(押送)하라. 그렇지 않으면 간악한 것이 저절로 밝혀질 것이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하였다.

8.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辛禡三)

계해 신우 9년(1383), 대명 홍무 16년

*고려가 일방적인 친명정책 대신 명과 북원 사이를 오감.

○ 나하추가 문합라불화(文哈刺不花)를 보내어, 예전의 우호관계를 회복하자고 청하였다.

○ 요동 도사가 통첩을 보내기를, “고려가 대명을 신하로서 섬기니, 나하추와 화친을 통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이제 듣건대, '나하추가 문합라불화를 보내어 화친을 청하자, 고려가 후하게 대접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하니, 신하로서 대명을 섬기는 의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만일 죄를 면하고자 하거든, 문합라불화를 잡아 보내어 그 정성을 드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비록 후환이 있더라도 후회막급이리라.” 하였다.

○ “고려가 멀리 동쪽 변방으로부터 지난번에 와서 아뢰어 약속 듣기를 원하였으나, 속으로는 여러 가지로 거짓을 품어서 틈이 생기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짐이 그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화가 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뒤에도 자주 와서 허락하여 주기를 청하므로, 짐은 성의가 지극하다고 생각하여 세공을 한정해서 저들의 성의를 표하게 하였던 것이다. 간 뒤에 약속대로 조공하지 않은 지가 다섯 해나 되었는데, 이제 또 경하하는 예로 왔으니 정성스럽기는하나, 시기가 지나서 이르렀으니 어찌 심한 모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신을 보낸 일로 말하면 고려 국왕과 그 신하의 잘못이 아니며, 사자가 고의로 무시하고 만홀히 하여 시기가 지나서 온 것이다. 지금 고려가 완전히 신하가 되었으니, 영구히 사대(事大)의 정성을 지킬 것이다. 온 사신은 이미 조회하는 예에 어긋났으므로 마땅히 법사에 회부하고, 바친 예물은 이미 시기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받아들이지 말며, 다시 고려에 문서를 주고, 반드시 약속 듣기를 원한다면, 지난 5년 동안 바치지 않은 세공으로 말 5천 필, 금 5백 근, 은 5만 냥, 베 5만 필을 한꺼번에 가져와야만 곧 성의가 인정되며, 다른 날에 사자를 데려가기 위한 군사의 출동을 면할 것이다.” 하였다.

신우 3(辛禡三)

을축 신우 11년(1385), 대명 홍무 18년

*명이 점차 고려에 대해 원을 대신하여 패권을 투사시키려고 함.

○ 요동에서 상린(桑麟)을 보내어, 원나라 말기의 떠돌이 백성 이타리불대(李朶里不歹) 등 47명을 되찾아 돌아갔다.

○너의 고려는 하늘이 만든 동이(東夷)로 땅이 험하고 멀어서 짐이 이를 조사하며 따져서 틈을 내지 않고 각각 편안히 살게 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어찌서 자주 예속되기를 청하여 자꾸 고집을 부리는가. 하물며 여러 신하들이 받아들여주고 간하였기 때문에, 또 같이 보고 다 같이 사랑하여 중국 이외의 지방임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제 공경과 정성을 운허하여 전 작위를 이을 것을 명하노니, 의식은 본래 풍속을 따르고, 법은 옛 전장(典章)을 지키라. 아아, 동이와 중국이 모두 편안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늘이 밝게 굽어보실 것이다. 이미 짐의 명령을 좇았으니, 틈을 내지 말고 생업을 이루라

○그러나 죽인 자가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죄역을 은폐할 생각으로 우리의 사신을 죽였다. 그런 뒤에도 여러 번 제후로서의 약속을 청하였으나, 짐이 자주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분수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청하기를 마지아니하므로, 짐이 무리하게 그 말을 좇아서 세공을 요구한 것은 삼한의 정성을 알아보려 한 것인데, 그쪽에서 명을 들은 지 한두 해가 못 되어 약속을 위반하고, 또 3년이 못 되어 약속대로 하며, 또 2년이 못 되어 곤란한 뜻을 호소하였다. 아아, 짐이 볼 때에 사해 안에서 중국에 이웃하여 있는 나라로 삼한은 최하의 나라가 아니다. 직경이 1, 2천 리나 되는데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 어찌서 바른 성품이 일정하지 못한가. 또 세공을 설정한 것이 어찌 중국이 이것으로 부유하게 되려 해서이겠는가. 삼한이 진실한가 거짓인가를 알려고 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9. 고려사절요 제33권

신우 4(辛禰四)

무진 신우 14년(1388), 대명 홍무 21년

*KBS 드라마 “정도전”의 스토리를 생각하면 됨. 1388년부터 본격적으로 명이 조선에 패권을 작동시키려고 함.

○ 설장수(偁長壽)가 남경으로부터 돌아와서 구두로 황제의 명을 전하기를, “고려가 짐의 약속을 듣기를 원하므로 해마다 말을 조공하게 하였더니 바친 말이 아무데도 소용이 없고, 또 어렵다고 호소하므로 내가 명령하기를 세공(歲貢)은 하지 말고 3년에 종마(種馬) 50필씩만 바치라 하였는데, 가져온 말이 또 소용이 없어서 뒤에 5천 필을 사왔으며, 또 모두 약하고 작아서 우리 말 한 필 값이면 그 말 두세 마리는 살 수 있었고, 지금 또 의관(衣冠)을 고친 사례로 말을 가져왔는데, 발굽이 거칠고, 엉덩이 살만 풍만하였다. 기왕 바치는 것이라면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사신이 오다가 서경(西京)에 이르러 팔아 바뀌어 온 것이다. 이미 장자운을 금의위(錦衣衛)에 가두었으니, 해가 지난 뒤에 죄를 주겠다. 네가 돌아가서 집정 대신에게 고하라. 짐이 이미 통상을 허락하였는데, 그대들 편에서는 도리어 분명한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무역하게 하지 않고, 은밀히 사람을 시켜 대창(大倉)에 와서,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는지 배를 만들고 있는지를 엿보고, 가서 소식을 알려주는 우리 편 사람에게 중한 상을 주니, 이것은 거리에 노는 어린아이의 소견이다. 지금부터는 조심하여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또 사신을 보내지 말라. 철령(鐵嶺) 이북은 원래 원 나라에 속하였으니 모두 요동에 귀속시키고, 개원·심양·신주(信州) 등처의 군사와 백성은 생업을

회복하도록 들어주라" 하였다. 황제가 또 약재를 주었다.

○ 최영이 백관을 모아서 철령 이북을 명 나라에 바칠 것인가의 가부를 의논하니, 모두 불가하다 하였다.

○ 우가 최영과 함께 비밀리에 요동을 치기를 의논하였다.

○이것이 상국을 첫 번째로 무시한 것이요, 표문에 사은(謝恩)한다 하면서 예물로 보낸 말이 왔는데 모두 얼룩진 잡색이어서 행상하는 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이니, 두 번째로 무시한 것이요, 때로는 간혹 사람을 보내어 몰래 온(溫)·태(台)·항(杭)·소(蘇)·송(松) 등 제주의 백성들을 꾀어 비밀리에 사세를 엿보다가 발각되었으니, 세 번째로 무시한 것이요, 짐이 일찍이 여러 사신에게 이르기를, '이런 간계를 꾸미지 말고 백성의 생업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수록으로 공공연히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도록 허락했으니 무슨 일인들 되지 않으며, 무슨 기밀인들 얻지 못하겠는가. 몰래 간사한 꾀를 내어 백성을 유인하여, 그들이 금백(金帛)에 속아 망령되어 사세를 말하게 함으로써 공공연히 소인에게 속임을 당했으니 이는 어리석은 것이니 네 번째로 무시한 것이요.

○조종의 의관과 예악(禮樂)은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랐었는데 원 나라 때에 이르러 당시 황제의 제도에 눌러서 중국 제도를 변경하여 몽고를 따랐으니, 위와 아래를 분별할 수 없고 백성의 뜻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릉(玄陵)께서 상하의 분별이 없는 것을 통탄하여 몽고의 제도를 변경하여 중국을 따라서 조종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호복(胡服)을 개혁하기를 청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승하하셨습니다. 상왕(上王)이 뜻을 이어 승인을 얻었는데 중간에 집정하는 신하가 고쳐버렸습니다. 전하가 즉위하여 친히 중화의 의복을 입고 온 나라 신민과 함께 다시 새롭게 하였으나 품제(品制)에 맞지 않아 유신(維新)의 정령(政令)에 장애가 되니, 원컨대 헌부를 시켜서 날을 한정하여 그 제도를 따르게 하소서.

10. 고려사절요 제34권

공양왕 1(恭讓王一)

기사 원년(1389), 대명(大明) 홍무 22년

*1388년의 북원정벌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굳힌 명이 고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고려와 명의 관계는 “협력 속의 갈등”에서 “갈등”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함. 이와 함께, 원 제국의 것이 아닌 명의 문명표준, 언어표준, 외교표준을 고려를 비롯한 주위 국가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함.

○ 이색(李穡)이 남경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평소부터 이색의 명망을 들었으므로 예로써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에 이르기를, “너는 원조(元朝)에 벼슬하여 한림이 되었으니 응당 중국말을 알 것이다.” 하였다. 이색이 중국말로 빨리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황제가 알아듣지 못하여 예부의 관원이 이를 전해 아뢰었다. 황제가 웃으며 이르기를, “너의 중국말이 꼭 나하추[納哈出]와 같다.” 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의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사신을 보내와서 빙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왜적에게 사로잡혀 간 인구(人口)를 돌려보냈다.

-원-명 패권전환기에 명의 간섭이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과도기에 고려가 오키나와와 사사로이 교류함.

○우리 국가가 대명(大明)을 섬긴 후로 표전의 사명(詞命)은 대부분 승인의 손으로 지어졌으

니, 공민왕(恭愍王)이 시호를 얻고, 상왕이 부조(父祖)의 봉작을 이어받게 된 것은 모두 송인의 문장(文章)의 힘이며, 세공에 금·은·말·베를 면제 받은 것도 역시 송인의 힘이며, 황제께서 여러 번 문장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우리나라에 인물이 있다고 말한 것도 역시 이것이 송인의 공이었습시다.

-이송인의 대명외교에서의 공로를 보여줌.

11. 고려사절요 제35권

공양왕 2(恭讓王二)

신미 3년(1391), 대명 홍무 24년

*1388년의 북원정벌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굳힌 명이 고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고려와 명의 관계는 “협력 속의 갈등”에서 “갈등”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함.

○ 황제[明太祖]의 이름(원장(元璋))을 피하여 원(元) 자 쓰는 것을 금하고, 원(原) 자로 대신 쓰게 하였다.

-이는 원이 사용하던 ‘한아언어’대신 명의 언어표준인 남경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등 문명표준과 언어표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줌.

○ 황제가 환자 한룡(韓龍)·황독만(黃禿蠻) 등을 보내와서 말 1만 필과 환자 2백 명을 요구하였다.

○ 상복의 제도를 정하였는데, 한결같이 대명(大明)의 제도에 의거하였다.

-고려가 명의 문명표준을 수용하게 되었음을 보여줌.

공양왕 2(恭讓王二)

임신 4년(1392), 대명 홍무 25년

*국내정치적으로는 이성계가 고려를 대신하여 조선의 태조로 등극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명의 지배를 수용하면서도 여진족들을 수하에 두려고 함.

○ 울랑합(兀良哈)과 알도리(斡都里)가 와서 조회하는데 서로 윗자리를 다투었다. 알도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온 것은 윗자리를 다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시중 윤관(尹瓘)이 우리 땅을 평정하고, 비(碑)를 세워, '고려의 땅[高麗地境]이다.'라고 썼습니다. 지금 경내의 인민이 모든 군사(軍事 관직)의 위신을 사모하여 왔을 뿐입니다.” 하며, 드디어 서로 다투지 않았다. 태조가 울랑합과 알도리를 자기 집에서 대접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봉종하였기 때문이다. 알도리는 곧 동여진이다.

○ 황제가 그전 원 나라 양왕(梁王)의 자손 애안 첩목아(愛顔帖木兒) 등을 탐라에 두었다.

-명이 원제국을 대신하여 중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됨에 따라 장차 화근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고려로 보내어 제거하여 국내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려의 충성을 시험하려고 함.